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5 26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원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현진, 사무관 김동희, 주무관 이승연 • ☎ (02) 2131-2030, 2033, 2035	
보도 일시	2021년 5월 27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7.(목) 6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국토교통부-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”

- 용산기지 내 잔류부지 축소를 통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(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)과 “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(MOU)”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(용산기지 북단에 위치)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(25년 준공예정)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.

【 MOU 주요내용 】

- ① 양측 정부는 한국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,236㎡을 서로 교환
- 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
- ③ 미측은 부동산 교환 후 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내 위치한 직원숙소 시설 및 부지를 한국정부에 즉시 반환

- 이에 따라,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,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김홍진 국토도시실장은 “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,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공원정책과 김동희 사무관(☎ 02-2131-20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